〈調査報告〉 ◉濟州島硏究, 제 1 집, 1984.◉

제주도 연자매(물방에)

金 榮 敦*

이 글은 文化財管理局에서 1975年 3月, 〈民俗資料 調査報告 第43號〉로 간행한 필자의 『硏子磨』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필자는 문화재관리국의 조사의뢰에 따라, 1974年 여름과 가을 넉달 동안 도일주를 몇 차례나 거치면서 제주도 연자매의 分布, 形態, 製作過程, 維持와 修理, 硏子磨契, 機能 등을 조사 보고한 바 있었으며, 이에 터전하여 1975年 10月 부터 涯月邑 下加里의 〈잣동네 물방에〉와 新嚴里의 〈당거리동네 물방에〉가 중요민속자료 제 3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1974年 조사 당시만 하더라도 연자매는 꽤 남겨졌었고, 곧 뜯겨질 것에 대비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회의때마다 제의했었으나 그럭저럭 10여년이 흐르는 사이에 거의 사라져 버렸음이 참으로 아쉽다. 이 調査報

*제주대학교 국문과 교수

告를 여기 소개하는 뜻은 농민과 밀착된 농기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더러, 農村小集團의 유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소중한 연자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어도 제주도내에 20여기쯤은 復元되기를 바라는 뜻에서다. 또한 한국에서 아직 제 틀도 잡히지 못한 民具硏究를 촉구하는 뜻과 더불어 도민의 集團構造와 生産樣態 및 民間慣習 연구를 위한 한갖 자료로 이바지되리라 믿어서다.

연자매는 인류가 定着農業을 시작한 이래, 농사에 必要한 器機를 숱하게 발명하여 써 오던 것들 가운데, 傳來的인 것으로는 꽤 規模 있고 利用度가 높으며 오랜 세월 농민들과 함께하는 농기구의 하나다. 돌판 위에 덩잇돌이 얹혀져 그 덩잇돌이 연거푸 굴러가는 동안 그 사이에 끼어든 穀食의 알갱이가 떨어지고 찧어지며 빻아지는 이 소박한 연자매의 구조는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시설이지만, 특히 제주도의 그것은 구조가 딴딴하고 分布가 조밀하다. 논이 드문 제주도에서는 주민의 主穀이 보리와 조·잡곡이기 까닭에 농가에서는 연자매의 利用度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必須不可缺의 농기구로서 군림해 온 터이다.

〈물방이〉·〈물방에〉·〈물ㅋ레〉 등으로 불리는 이 연자매는 제주도의 農村에서 平均 30가구에 한군데씩 설치되었었으니, 마을에 들어서면 그게 어느 자그마한 마을이라더라도 이내 연자맷간(硏子磨屋)이 눈에 띄게 마련이었다. 〈물방이집〉·〈물방에집〉·〈물ㅋ레집〉, 或은 〈물방이왕〉〈물방에왕〉·〈물가레왕〉, 아니면 줄여서 〈방잇간〉·〈방엣간〉이라 하기도 하는 이 연자맷간에서 불과 50 m 내지 100 m를 걸으면 다시 연자맷간이 나타나곤 했다.

연자맷간은 濟州의 名物이요 도민들은 연자매와 더불어 哀歡을 함께 해 왔다. 연자매의 運用과 계원끼리의 相扶를 위하여 연자매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졌던 契組織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는 연자매를 통하여 그들의 生産活動과 民間智慧 및 協扶意識을 살펴볼 수 있다.

1980년에는 安德面 德修理에서 이 연자매를 만들 돌을 마을로 굴러들여 오며 부르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출연하여 대통령 상을 받기도 했다. 기회가 없어 본토 연자매와의 비교 등 다각적인 조사, 연구를 보완하지 못한 채 지난날의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소개

하는 점 겸연쩍다. 指定 保存되는 下加·新嚴의 〈잣동네 물방에〉와 〈당거리동네 물방에〉를 除外하면 이 글에서의 보고는 1974년 조사 당시의 實狀이므로 오늘의 실태와는 거리가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연자매 몇몇이 시급히 復元, 指定되고 깊이있는 조사, 연구가 活性化되길 바란다.

Ⅰ. 마을과 연자매

외외히 높아 의젓한 漢拏山이 천천히 바다로 뻗쳐 나간 바닷가에 제주도의 聚落은 옹기종기 이루어졌다. 일주도로를 한바퀴 돌아본 분이면 이내 짐작되듯 길 양옆으로 마을과 마을이 띄엄띄엄 이어져 나간다. 신작로 곧 일주도로를 따라 마을과 마을은 대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이 山間으로 뻗어 올라간대야 海岸에서 불과 4～5 ㎞쯤이요, 7～8 ㎞山으로 올라간 마을도 드문 편이다.

제주섬을 빙 둘러가며 海岸 가까이에 많은 마을들은 대체로 密集되어 있다. 한집 한집이 군데군데 외로이 떨어져 나간 경우는 별로 드물고 몇십가호가 사이 좋게 들어 박혀 제각기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다. 이 자연부락들은 길이나 밭들을 사이에 두고 제각기 흩어져 있는데 이 몇몇의 자연부락은 하나로 뭉쳐져 마을을 이룬다.

이 전설겨운 자연부락에는 그 동네마다 무슨 亭子라도 있음직한 곳에 연자매가 섰었다. 동네 家家戶戶마다 대체로 가까운 等距離이면서 출입이 편리한 지점에 연자매는 위치한다. 골목 어귀이거나 동네 한복판 길가에 위치한 硏子磨屋은 제주도 특유의 家屋形態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곧, 지붕은 띠(茅草)로 이어져 바둑판처럼 얽어 매었으며 둘레는 돌담을 쌓아 뱅 둘러져 있다. 주민들은 이 硏子磨屋을 〈물방이집〉·〈물방에집〉·〈물ᄆᆞ레집〉, 혹은 〈물방이왕〉·〈물방에왕〉·〈물ᄆᆞ레왕〉이라 부른다. 그냥 〈방잇간〉·〈방엣간〉이라 하기도 한다. 역시 연자매는 〈물방이〉·〈물방에〉·〈물ᄆᆞ레〉라 하는데 이 말들은 그

대로 硏子磨屋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 여기 〈 물~ 〉은 말 (馬)의 濟州語. 연자매를 運用하는데 馬力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 ~방이 〉·〈 ~방에 〉는 방아요, 〈 マレ 〉는 맷돌이니 연자매의 원리가 어찌 보면 맷돌을 大型化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연자매는 제주도민 모두와 줄곧 哀歡을 함께 했다. 韓本土에도 연자매야 있지만 제주도민의 主穀은 보리와 조이기 때문에 農家마다 연자매를 이용해야 할 기회는 썩 많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 중요농기구의 하나이면서 중요작업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연자매에서 마소를 몰며 자랐다. 마소를 몰며 한나절 연자맷간을 뱅뱅 돌던 어린 날의 추억을 농민들이면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게 마련이다.

이제는 硏子磨屋도 거의 뜯기어 자취마저 사라져 간다. 불어나는 精米所와 脫穀機에 점차 밀려났다. 그 온전한 모습은 몇몇 마을에서 을씨년스레 살펴볼 수 있을 정도. 10년~20년 사이에 대거 철거되어 이제는 희귀하게 남겨진 이 연자매는 우리에게 지난날을 헤아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군림하기에 이르렀다. 洞口를 들어서면 이내 목격되는 것은 연자매의 〈 웃돌 〉이 4H標識板, 立看板, 놀이터의 쉴 자리, 빨랫터 등으로 제멋대로 둔갑된 모습들이다.

연자매는 대체로 10여가구에서 수십가구당 일개소씩 지녔었다. 연자매 한개의 設立·維持·修理·運用을 위하여 주민들은 그 연자매를 쓸 이웃끼리 契組織을 했었다. 따라서 연자매는 동네마다 한둘씩 있게 마련이요 마을안에는 여남은이나 되는 연자매가 세워진다. 한 연자맷간 안에 연자매 하나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 쌍방에 〉라고 하는 같은 磨屋內 연자매 둘이 설치되기도 한다. 가끔 마을의 부호 가운데는 제 집 입구에 개인소유의 연자매를 마련하는 수도 있었다.

몇몇 마을의 연자매 분포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濟州市 2개동, 北濟州郡 5개리, 南濟州郡 2개리등 도합 9個里洞의 분포상황을 보기로 한다.

우선 195가구를 지닌 涯月邑 下加里에는 원래 9개소의 연자매가 있었다.

◎ 안굴 물방에
◎ 수덕이 물방에
◎ 잣동네 물방에
◎ 동안굴 물방에
◎ 물막은거리 물방에
△ 못 물방에
△ 큰동네 물방에
△ 알동네 물방에
△ 동카름 물방에

1974년 현재 남겨진 연자매는 ◎표시의 5개이며 △표시의 4개는 허물어졌다. 한 마을에 그래도 5개처나 연자매가 보존된 마을도 현재로선 별로 안보인다.

243가구의 涯月邑 新嚴里에는 14개의 연자매가 있었는데 現用되는 연자매는 〈 당거리동네 물방에 〉 하나뿐이며, 거의 부서져 가는 게 2개, 나머지는 전부 철거되었다. 現用을 ◎표시, 形體만 남겨진 것을 ○표시, 이미 철거된 것을 △표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당거리동네 물방에
○ 동산거리 물방에 A
○ 안굴 물방에
△ 동산거리 물방에 B
△ 진수리 물방에 (쌍연자매)
△ 시커리 물방에 (쌍연자매)
△ 베롱골 물방에 (쌍연자매)
△ 답다리 물방에
△ 윤나미 물방에
△ 실거리 낭목 물방에
△ 큰거리 물방에

翰京面 龍水里(239가구) 는 연자매가 11개소 있었으나 1970년까지 완전히 뜯기었다.

법걸물방에A
겡계목물방에
주구동산물방에
앞동네물방에
장안물방에B
영덕동산물방에
법걸물방에B
뒷가름물방에
웃동네물방에
장안물방에A
지사레물방에

72가구가 사는 濟州市 梨湖一洞 東部落의 경우는 연자매가 3개소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뜯기어서 亭子, 喪輿집으로 그 터가 쓰이기도 하고 그냥 방치해 두어 두기도 했다. 그 3개소의 연자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큰물물방에
족은물방에
서커리물방에

朝鮮朝初에서 약5세기간 제주도는 三縣分立統治되었었는데 1423년(世宗 5년)~1913년 사이 義縣縣 所在地였던 表善面 城邑一里(272가구) 역시 다른 대부분의 마을들이나 마찬가지로 연자매는 다 뜯겼다. 원래 있었던 연자매는 다음의 16개소였다.

南門물방에
공문동산물방에
가개비통물방에
산냇도물방에
막은굴물방에
왕돌목물방에(2개소)
성뒷물방에
東門물방에
당남밧물방에
둠부리통물방에
객사앞집물방에
서문거리물방에
뒷골목물방에

城邑里의 경우 특이한 점은 개인소유의 연자매가 마련되었었다는 점이다. 곧 위의 〈 객사앞집물방에 〉인 바, 예전 客舍였던 지금의 城邑國民學校의 남쪽 城邑里 872번지 趙一訓氏宅에서 개인소유로 집안에 연자매를 마련했었다. 日帝時 區長職을 지낸 趙一訓氏의 祖父가 세웠었다는데 도내에서도 개인이 연자매를 세웠던 예는 퍽 드물다.

朝天面 新村里(739가구)의 경우도 개인소유의 연자매가 한군데 있었다. 곧 新村里 西元洞 강희주씨 가옥 대문 바깥에 있었었는데 그 가옥의 원주인은 이름난 富豪로서 마소도 숱했는가 하면 奴婢도 많았다 한다. 역시 연자매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 있는 富豪이면서 威勢가 당당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던 듯하다.

朝天面 咸德里에도 韓在琪氏宅 등 韓氏家門에 개인소유 연자매가 몇군데 있었다 한다.

朝天面 新村里에는 도합 17개소에 연자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거되었다. 주로 10년~15년전에 철거되었다는 바 17개소에 있었던 연자매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돗물물방에(東洞)	돌코지물방에(東洞)
일렛당물방에(東洞)	앞동산물방에(中洞)
분동산물방에(中洞)	신젯거리물방에(上洞)
백죽가름물방에(上洞)	웃상두거리물방에(上洞)
불미가름물방에(上洞)	대수동물물방에(大水洞)
광수빌레우물방에(西下洞)	설채왓물방에(西上洞)
광수빌레알물방에(西下洞)	안계물물방에(西下洞)
시원동냥알물방에(西元洞)	앞개물방에(西元洞)
강희주씨집앞물방에(西元洞)	

다음에는 濟州市 三陽二洞(360가구)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30년

전쯤에 모두 허물어져 버렸지마는 도합 7개소의 연자매가 있었다.

멋머리 물방에　　동카름웃물방에
동카름앞물방에　　알카름웃물방에
물카름웃물방에　　물카름앞물방에
알카름앞물방에

89가구에 불과한 涯月邑 召吉里의 경우는 역시 다 뜯기다가 마을 입구 주차장 옆에 지붕만 걷힌 연자매 하나가〈 중수리 〉에 버스정류소 標識板이 꽂힌채 을씨년스레 서 있었다. 召吉里의 연자매는 원래 다음의 7개소였다 한다.

한질동네셋물방에　　한질동네동물방에
중동네알물방에　　중동네웃물방에
못동네쌍물방에　　웃동네(케상밧동네)물방에

여기〈 못동네쌍물방에 〉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 硏子磨屋 안에 연자매가 나란히 둘이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家戶가 밀집되어 있는데 연자매 하나로서는 그 수요에 모자랄 경우, 가끔 이 쌍연자매를 설치했었다.

제주도의 開闢神話의 주인공으로서 유명한 三神人이 碧浪國의 三公主를 맞아들이고 혼인했었다는 婚姻址가 있어 꽤 알려진 城山邑 溫平里(395가구)에는 모두 6개의 연자매가 있었다.

웃동네물방에(2)　　못벵뒷동네물방에
중동네물방에　　셋동네물방에
알동네물방에

몇 마을의 예를 보았지만, 제주도내 자연부락에는 어디든 할것없이 연자매를 설치 않은 마을이 없었다. 마을마다 설치된 이 연자매는 그 위치가 반드시 그 연자매를 쓰는 集團 各家戶들 모두가 출입하기에 편한 길가였다. 연자매의 수효는 마을에 따라 일정치 않다. 촌락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비슷한 크기의 촌락이라도 마을사람들의 뜻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家口數에 대한 비율이 제각기 다르다. 위에 예들었던 몇마을의 家口數에 비해 연자매수의 평균을 통계하면 別表와 같다.

研子磨의 分布

○家口, 人口數 1973.10.1 現在
○研子磨數 1974. 8.1 現在

里洞名	家口數	人口數	研子磨數	研子磨當平均家口數	保存狀態
涯月邑 下加里	195	670	9	21.7	5個現存, 4個徹去
涯月邑 新嚴里	243	982	14	17.4	3個現存, 11個徹去
翰京面 龍水里	239	1,086	11	21.7	全部徹去
濟州市利湖一洞東部落	72	288	3	24.0	〃
表善面 城邑一里	272	1,242	16	17.0	〃
朝天面 新村里	739	3,061	17	43.5	〃
濟州市 三陽二洞	360	1,502	7	51.4	〃
涯月邑 召吉里	89	353	7	12.7	1個現存, 6個徹去
城山邑 溫平里	395	1,938	6	65.8	全部徹去
備考	研子磨當 平均家口數의 平均 30.6				

Ⅱ. 연자매의 形態

연자매는 자그만 研子磨屋內에 설치된다. 圓形의 판판한 石板 위에 그 石板보다는 작고 圓形의 돌을 세워 뱅뱅 돌게 장치되어 있는 게 연자매의 기본구조다. 커다랗고 판판한 石板 위에 둥근 돌이 세워져서 서로 맞부딪치며 돌아가는 사이, 石板 위의 穀物은 장만이 되거나 빻아지는 것이다.

이 연자매의 소박한 원리는 비단 제주도에서만 創出되어진 것은 아니다. 韓國一帶에 널리 흩어져 있는 구조로서 이 연자매의 기본형태는 韓本土나 제주도나 별다름이 없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主穀이 보리와 조이요 雜穀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날 연자매를 이용해야 할 기회가 더 흔했으며 마을마다 연자매가 분포된 그 비율도 높은 편이다. 말하자면 제주도에는 常流河川이라곤 몇몇뿐이요 거의가 乾川이기 때문에, 밭과 논의 비율은 약 50대 1이어서 보리와 조가 예전부터 主穀을 이루었다. 보리와 조는 벼에 비해서 그 껍질이 두텁기 때문에 이를 찧어내는데 훨씬 번잡하므로 자연히 연자매의 이용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연자매의 분포율이 높으며, 그 구조가 硏子磨屋을 지니고 있었다.

판판하고 둥근 커다란 石板을 〈 알돌 〉(혹은 〈 바닥돌 〉·〈 알착 〉)이라 하며, 이 〈 알돌 〉 위를 구르는 둥근 돌을 〈 웃돌 〉(혹은 〈 웃착 〉·〈 맷돌 〉)이라 한다. 〈 알돌 〉은 땅 바닥에 고인 돌덩이들 위에 얹혀졌으며, 안쪽이 우묵하도록 가장자리에는 뱅 둘러가며 〈 천돌 〉을 10여조각 붙여 쌓았다. 〈 천돌 〉과 〈 천돌 〉 사이는 해방이후 시멘트로 고정시켜 놓았으나 원래는 진흙에 솜을 섞어 쪄서 메꿈으로써 단단히 굳혔었다. 만약 이 진흙 칠한 게 떨어져 나가면 한달에 한두번 새로이 칠했었다 한다. 1930년대까지는 가끔 〈 천돌 〉 대신 나무 곧 느티나무·벚나무로 만든 테를 둘렀었다는데 日帝時 伐木을 금하므로 점차 石材로 대체되었다지만 堅固性등 다른 이유가 따랐었을 줄 안다.

〈 알돌 〉(혹은 〈 바닥돌 〉·〈 알착 〉)의 圓中心에는 〈 중수리 〉라는 圓木을 박아 놓았다. 〈 중수리 〉가 〈 알돌 〉의 圓中心에 박혀 고정된 구멍을 〈 중수리 구녁 〉이라 한다. 이 〈 중수리 〉를 의지하여 〈 웃돌 〉이 돈다. 따라서 이 〈 중수리 〉는 木製일 경우 자주 갈아야 한다. 硏子磨契 座目에 보면, 그 契員들이 〈 중수리 〉재목을 각출한 기록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자주 갈아야 하는 게 번잡스러워서 일부지방에

선 鐵製파이프로 대체한 곳도 있었다. 〈 웃돌 〉 圓中心에 네모로 〈 장통구녁 〉을 안팎으로 뚫어서 〈 웃돌 〉 주변을 短形으로 둘러친 〈 틀목 〉과 연결, 고정시켜 놓았는데 그 안쪽 〈 틀목 〉(〈 뒷틀목 〉이라한다.) 가운데를 〈 중수리 〉가 꿰뚫는다. 〈 중수리 〉가 꿰뚫는 구멍을 〈 틀목구녁 〉이라 한다. 〈 틀목 〉 가운데를 〈 틀목구녁 〉을 통하여 〈 중수리 〉가 꿰뚫음으로써 〈 중수리 〉와 〈 틀목 〉은 연결된 채 돌아간다.

〈 웃돌 〉을 둘러친 〈 틀목 〉에는 〈 앞틀목 〉(큰틀목)과 〈 뒷틀목 〉(족은틀목)이 있다. 〈 앞틀목 〉은 웃돌 안쪽의 〈 틀목 〉이며 〈 뒷틀목 〉은 〈 웃돌 〉 바깥쪽의 〈 틀목 〉이다. 이 〈 앞틀목 〉·〈 뒷틀목 〉을 통틀어 〈 장틀목 〉이라고도 한다. 이 두 〈 틀목 〉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를 〈 ᄆᆞ른틀목 〉 혹은 〈 ᄆᆞ른새 〉라 하는데 이 〈ᄆᆞ른틀목〉 역시 〈앞ᄆᆞ른틀목 〉과 〈 뒷ᄆᆞ른틀목 〉으로 구분된다.

이 〈 틀목 〉은 〈 웃돌 〉 주변으로 둘러쳐 있으며, 〈 웃돌 〉 중심점에 파인 〈 장통구녁 〉에 〈 틀목 〉(앞틀목·뒷틀목)에 장치된 〈 장통좃 〉을 끼워 놓았으므로 〈 웃돌 〉은 〈 중수리 〉를 이탈하지 못한 채 〈알돌〉 위를 일정하게 맴돌게 된다. 또한 〈 웃돌 〉은 언제나 〈 바닥돌 〉 위를 圓을 그리며 돌아가도록 안쪽 직경에 비해 바깥쪽 직경이 좀더 깊게 만들어졌다. 〈 틀목 〉 끄트머리에는 矩形의 구멍이 비스듬히 뚫어졌고 그 구멍에 〈 채경 〉(혹은 〈 챗낭 〉이라고도 함)을 끼워 마소가 이를 끌거나 아니면 사람이 끌고 밀도록 되어 있다. 이 〈 채경 〉은 연자매에 따라서는 〈 뒷틀목 〉 중간부분까지 끼우면 도합 넷까지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채경 〉을 넷이나 끼울 경우는 人力으로만 연자매를 찧을 때다. 이 〈 채경 〉은 평상시 硏子磨契의 所任이 이를 보관해 두었다가 契員 가운데 연자매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내준다. 그러니까 〈채경〉은 끼웠다 빼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수리 〉나 〈 틀목 〉의 재목은 가시나무나 소리나무등 참나무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준비할 수 없으면 소나무를 쓴다. 〈 중수리 〉가

참나무일 경우면 10년, 소나무일 경우면 2, 3년쯤씩 견디며 〈 틀목〉은 훨씬 오래 간다.

硏子磨屋은 나무기둥 4～6본, 돌기둥 4～6본을 세워 그 골격으로 삼고 출입구를 빼고 온통 돌담으로 둘러쌓는다. 거의 正四角形이면서 各角은 멀 모나서 弧線으로 둘렀다. 이 硏子磨屋의 골격이 되는 돌기둥은 흔히 생략되어 나무기둥만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硏子磨屋을 들어서면 그 입구 구석에 〈 돌혹 〉을 넣어둔 곳도 있다. 〈 돌혹 〉이란 正圓形의 石製圓筒인데 여기 물을 채워 두었다가 보리 따위를 찧을 때 곡식에 부어 이를 축이는 데 쓰인다. 음료수를 가까이에서 길어 올 수 있으면 이 〈 돌혹 〉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음료수를 손쉽게 길어 올 수 있는 동네에서는 硏子磨屋을 설치하면서도 아예 〈 돌혹 〉을 갖춰 놓지 않는다. (例. 新嚴의 〈 당거리동네 물방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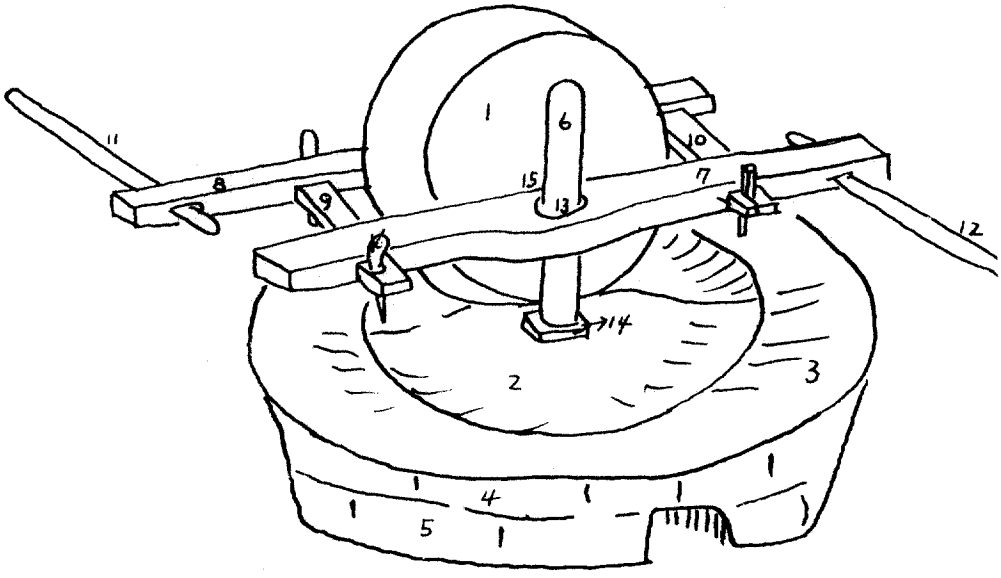
硏子磨屋內 구석에는 찧을 곡식이나 곡식 찧을 때 곡식을 축일 음료수등을 얹혀둘 〈 팡 〉이 설치되어 있다. 이 〈 팡 〉은 屋內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마련하기도 하고 띄엄띄엄 마련해 놓기도 한다. 70㎝ ～ 80㎝쯤 높이로 돌을 쌓은 위에 미끄닥한 돌판을 얹어놓은 것으로 등에 진 짐을 부리기에 알맞게 꾸민 것. 屋內 구석에는 가끔 예전, 말하자면 30년전까지 〈 각지불 〉이 주로 쓰였을 때, 이 〈 각지 〉를 얹혀 놓았던 燈檠台石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다. 燈檠台石이라 하지만 특수한 시설을 한 게 아니라 屋둘레를 돌담으로 쌓아가다가 台石이 될 만큼 판판한 돌덩이 하나를 안으로 불쑥 내밀게 장치해 놓은데 불과하다.

등피나 초롱불은 건물 들보 따위에 걸었었다. 낮에는 들일로 늘 바쁘기 때문에 연자매작업은 오히려 밤을 이용하는 율도 높았었으니, 야단스레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밤일을 하던 정경은 연자매가 사라지는 오늘날, 귀중한 추억으로 남겨졌다.

이상으로써 연자매 내지 硏子磨屋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말했다. 그러면 이 硏子磨屋은 어떻게 설립되는가. 가장 주가 되는 〈웃돌〉과 〈알

돌〉은 어떻게 製作되는가. 이는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연자매의 부분명칭



1. 웃돌(웃착, 방앳돌, 맷돌)
2. 알돌(알착, 바닥돌)
3. 천
4. 천
5. 첫돌
6. 중수리
7. 틀목 〉장틀목
8. 틀목
9. 앞ᄆᆞ른틀목(앞ᄆᆞ른새)
10. 뒷ᄆᆞ른틀목(뒷ᄆᆞ른새)
11. 앞채경(앞챗낭)
12. 뒷채경(뒷챗낭)
13. 틀목 구녁
14. 중수리 구녁
15. 장통 구녁
16. 새 역

Ⅲ. 연자매의 製作

연자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創案되어진 것일까. 적어도 이 연자매가 제주도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서 流入된 形態인가. 이를 밝혀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 없으며 크게 문제삼을 계제가 아닌 줄 안다. 韓本土의 연자매의 형태와 제주도의 그것과 그 기본구조는 꼭 같은 점으로 보아 제주도의 연자매 역시 본토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지 않을까.

어차피 연자매를 新設하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는 古老들은 가끔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연자매가 그 동네에 이미 설치된 게 있었어도 너무 거리가 멀어 많은 가호가 그 이용에 불편하거나 그 연자매만으로는 한창 쓰일 무렵 너무 붐비거나 할 경우, 의견이 합치되면 20여가구쯤 모여 연자매를 새로이 설치할 결의를 하고 이를 추진한다. 硏子磨契가 출발하는 것이다. 이 硏子磨契의 계원들은 단지 연자매를 세우고 이를 運用하며 이용할 뿐더러, 부모나 조부모, 처부모의 三年喪, 先祖 墓所의 移葬, 先祖 墓所의 築墻, 家屋의 新築등 집안에 大事가 있을 때 쌀을 모아 賻助한다든가 하는 相互 賻助契를 겸하는 게 보통이다. 다들 이웃일 뿐더러 같은 연자매를 설치하여 이를 더불어 쓰면서 修理·運用하고 아울러 相互 賻助契까지 이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農漁村社會에 있어서 親族組織 다음 가는 紐帶깊은 집단인 것이다. 이 硏子磨集團을 이루는 기본계약인 硏子磨契에 대해서는 항목을 달리해서 설명하겠다.

새로이 연자매를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면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쌀이나 현금으로 갹출하여 충당한다. 그리고 연자매를 마련하고 硏子磨屋을 신축할 때는 계원들이 총동원하여 勞力을 제공한다.

연자매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면서 벅찬 일은 〈 웃돌 〉과 〈알돌 〉을 마련하는 일과 磨屋建立에 소용될 돌기둥 몇몇을 마련하는 일이다. 〈 웃돌 〉·〈 알돌 〉·〈 돌기둥 〉·〈 팡돌 〉·〈 천돌 〉등은 물론 가급적이면 그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마련하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 웃돌 〉과 〈 알돌 〉은 良質의 石材를 택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흔한 玄武岩을 쓰지만 良質의 것을 고르다 보면 硏子磨屋이 설 자리까지 상당한 거리일 경우가 있다.

주변에서 그 石材를 고르게 되면, 그 계원들 가운데서 石手 재간이 있는 분들 몇몇이 그 石材가 있는 現場에서 이를 만든다. 만약 이를 제작할 石手가 그 마을에 없을 경우엔, 이웃 마을에 가서 石手를 招致해 다가 이를 제작한다. 예를 들어 涯月邑 新嚴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했다는 것이며 表善面 城邑里에서는 이웃 마을인 城山邑 新豊里나 表善面 加時里에서 石手를 빌어다가 만들었다 한다.연자매를 제작할 때, 招致해 온 石手에 대한 寢食, 援待는 契의 基金으로 충당하거나 그 계원들이 윤번제로 부담하거나 했다는데, 물론 이는 그 마을의 便宜와 계원들의 合意에 따랐을 것이다. 〈 웃돌 〉 제작에는 7일내외가 걸렸었다는데 모두 그 石材가 있는 현장에서 제작되었었다.

제작도 문제였었지만 만들어진 〈 웃돌 〉과 〈 알돌 〉을 硏子磨屋이 설 자리까지 운반하는 일이란 그에 못지 않게 벅찬 일이었다. 이 연자매에 소용될 〈 웃돌 〉·〈 알돌 〉·〈 기둥돌 〉의 운반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누구 누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날라왔다는 등, 逸話도 많다. 예들면 涯月邑 新嚴里의 〈 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경우, 〈 도들왓 〉이란 新嚴里 바닷가에서 그 〈 웃돌 〉을 여섯분이 운반해 왔었다는데 그 운반해 왔던 古老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 〈 당거리동네 물방에 〉는 아직도 온전히 보존되었을 뿐더러, 지금도 조를 장만한다든가 할 때 쓰이고 있는데, 이 〈 당거리동네 물방에 〉가 선 자리와 〈 웃돌 〉의 石材를 캐어 왔다는 바닷가 〈 도들왓 〉과는 약 500 m의 거리다. 이 500 m의 거리를 〈 웃돌 〉을 여섯분이 굴리며 운반해 온 그 때의 情景을 그〈 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계원들중 古老 몇분은 어련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허물어져 버려서 그 殘痕만이 을씨년스레 〈 웃돌 〉·〈 알돌 〉·〈 돌기둥 〉·〈 틀목 〉등이 뒤범벅된 채 放置돼 있는 같은 마

을 〈 안굴물방에 〉의 경우, 진수리동네서 〈 돌기둥 〉을 어찌어찌 운반해 왔었다는 逸話를 참 대견스런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안굴물방에 〉의 바닥돌을 약 60년전 신작로 뺄 때 지금의 新嚴中學校 터에서 張氏 혼자 운반해 왔었다고 전하면서 그 超人的인 힘을 극구 칭송한다.

새로이 연자매를 신설할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처럼 〈 웃돌 〉·〈알돌〉을 성의껏 제작하고 〈 기둥돌 〉·〈 천돌 〉·〈 팡돌 〉따위를 마련하는 한편 硏子磨屋을 세울 부지를 정한다. 부지는 그 연자매를 사용할 계원들 모두가 이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길가 터를 택한다.

일단 硏子磨間을 세워 運用하다가도 風水地理的으로 불리하거나 俗信上 언짢은 자리일 경우면 이를 移置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新嚴里〈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경우, 원래는 金奉珍氏宅 골목 입구에 있었으나 연자매가 午方에 있으면 牛馬에 피해가 있다는 俗信에 따라 계원들이 이용하기엔 불리한 거리이기는 하지만 現位置로 移建했다는 것이다.〈 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契所任인 鄭時好氏의 기억에 의하면 이 〈 당거리동네 물방에 〉가 설치된 지는 100년전 쯤이었으며 現位置로 옮겨진 것은 70년전 쯤이었다 한다.

磨屋의 지붕은 제주특유의 草家지붕 그대로다. 곧, 띠(茅草)를 덮고 밧줄처럼 꼬아 만든 띠줄로 바둑판처럼 얽어맨다. 이 집을 세운다든가 지붕을 인다든가, 〈 웃돌 〉·〈 알돌 〉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勞力은 계원들이 均等히 분담한다. 그리고 연자매를 마련하고 磨屋을 세우는 데 各家戶에서 갹출할 수 있는 資材 역시 균등히 갹출한다. 이 점은 연자매의 유지와 수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Ⅳ. 연자매의 運用·修理

모든 施設物이 다 그렇듯이 연자매 역시 일단 설치해 놓은 다음에도 이를 유지해 나가고 수리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책

무가 따라야 한다.

우선 硏子磨屋부터 살펴 보자. 硏子磨屋은 제주도 농어촌의 특유한 草家 그대로이기 때문에, 모든 草家 지붕을 해마다 또는 隔年制로 이듯, 硏子磨屋 지붕 역시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이어야 한다. 契員 各家戶의 지붕 이기를 대강 마치고 난 음력 12월초쯤해서 날짜를 정하고 이 硏子磨屋을 인다. 계원 각가호마다 지붕을 일 띠와 지붕을 바둑판처럼 얽어맬 〈 줄 〉을 갖고 나와 合力하여 硏子磨屋 지붕을 이는 게 어느 마을이든 공통된 慣例다. 契員의 多寡에 따라 호당 갹출하는 띠나 〈 줄 〉 수효가 각각 다르겠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띠 한뭇과 줄 두 거리를 持參하여 지붕을 이는 게 많은 마을의 관례였다 (예들면 涯月邑 新嚴里와 同邑 召吉里). 가다가 마을에 따라서는(예들면 朝天面 新村里) 〈 줄 〉 만들 그 재료(각단)를 收合하여 지붕 이기로 정해진 날 계원들이 일제히 나와서 〈 줄 〉을 뒤튼다 (〈 줄 〉을 뒤트는 일을 〈줄 놓는다 〉고 일컫는다).

硏子磨屋 지붕을 이는 날 기왕 계원들이 모인 기회이므로 經過報告와 會計報告를 하기도 한다. 所任등의 改編이 있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 날 定期總會를 여는 셈이다. 硏子磨契를 해설할 때 말하겠지만 이처럼 일제히 勞力動員하는 날 만약 不參하면 契座目에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가 應分의 對策을 세운다.

다음에는 〈 중수리 〉 代替가 신경 쓰이는 일이다. 앞에서 말했었지만, 〈 중수리 〉가 가시나무·소리나무 등 참나무로 만들어졌을 경우엔 10년쯤 견디니까 멀 번거롭겠지만, 소나무일 경우엔 2·3년 마다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 〈 웃돌 〉이 이 〈 중수리 〉를 의지하여 돌기 때문에 자칫 스치면서 닳아지기 쉬운가 하면, 〈 틀목 〉을 꿰뚫어 세워졌기 때문에 날이 가면 으레 닳아 못쓰게 된다. 그래서 2·3년에 한번씩 이 〈 중수리 〉를 새로 만들어 갈아 세우는 일은 계원들이 번갈아가며 의무적으로 맡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이 〈 중수리 〉 修理 經過의 備忘錄을 契座目에 기록해 두기도 한다.

參考로 涯月邑 新嚴里 〈 당거리동네 몰방에 〉의 契座目의 기록을 보기로 하겠다.

堂巷磨石中柱出資名簿

高永松 松貳回　　金平淇 松壹回
金成浩 松貳回　　文　鳳 松壹回
高千松 橫木壹回 松壹回　　宋永壽 松壹回
鄭時奉 眞本壹回　　高永哲 松壹回
金宗凡 松壹回　　高昌龍 松壹回
鄭時好 松貳回　　金昌權 松壹回
鄭時龍　　金奉旭 松壹回
鄭時鳳 松壹回　　河永善 松壹回
鄭時興 松壹回 眞木壹回　　金相敎
鄭奉吉 松貳回　　高熙柱 松木十介
李芳賢 西紀 一九七〇年 松中柱壹本 金奉順
鄭庚生　　李南眞
金時潤　　鄭珍保 松木貳回
洪錫行

이는 戊子 (서기 1946년) 8월 3일 이후의 〈 堂巷磨石契座目 〉 중의 일부다. 따라서 1948년까지 이어내려왔던 지난날의 座目들의 기록을 종합하여 移記한 것이다. 여기 〈 眞木 〉이란 참나무를 말하며 〈橫木〉이란 〈 틀목 〉을 가리킴이다. 〈 李芳賢 西紀 一九七〇年 松中柱壹本 〉이라고 특이한 기록이 보이는 것은 근래의 일이니 연도까지 기록해 둘 필요를 느껴서였을 줄 안다.

〈 웃돌 〉도 역시 3년에 한번쯤 매조이해야 한다. 〈 웃돌 〉이 알돌과 부딪치는 면은 너무 미끄러해지면 곡식이 제대로 찧어지지 않는다. 항

상 조금은 凸凹이 있어야 제대로 마찰이 돼서 찧고 빻을 수가 있다. 따라서 〈 알돌 〉과 부딪치는 면이 너무 미끄닥해지면 좀 凸凹이 생기도록 〈 돌도치 〉(石手用 도끼) 따위로 이를 쪼는 것이다. 〈 돌도치 〉가 마련 안되면 못쓰게 된 보습 끄트머리로 쪼기도 한다. 보통 3년에 한번쯤 매조이는데 상당한 技倆이 따라야 하는 일이 아니므로 계원들이 직접 이 일을 서둔다.

〈 웃돌 〉은 이처럼 3년쯤에 한번씩 매조이고, 또 쓰다가 매조이다가 보면 점점 작아진다. 정도 이상으로 〈 웃돌 〉의 크기가 줄어들게 돼 가면 무게가 줄어들어 기능이 약화될 뿐더러 규격이 〈 틀목 〉등과 어긋나서 못쓰게 된다. 쓸 수 없게 된 〈 웃돌 〉은 다시 새로 제작해서 갈아 놓아야 한다. 우리가 硏子磨屋을 유심히 드려다보면 硏子磨屋 문턱이나 屋內에서 닳아져서 못쓰게 된 〈 웃돌 〉이 놓여져서 〈 팡 〉따위로 쓰이는 것을 흔히 본다 (〈 팡 〉이란 등에 졌던 짐을 내려 쉴 수 있게 마련된 미끄닥한 돌판을 말한다).

〈 틀목 〉도 오래 써 가면 〈 웃돌 〉에 마찰되어 닳아지므로 갈아 메워야 한다. 대체로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솔피나무·가시나무 따위를 쓰다가 40년전부터는 소나무를 써 왔다.

硏子磨屋의 유지는 우선 그 지붕을 2년에 한번씩 이어야 하는 게 先決要件이다. 이 지붕 이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단지 지붕을 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샐 수 있고 들보따위가 어긋날 수도 있다. 지붕을 걷어치우고 들보따위를 새로 마련해서 그 지붕을 大修繕해야 한다. 이 때 그 資材는 계원들이 공동부담해야 하며 수리하는 날에는 계원전원이 총동원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 그신새 〉(지붕을 이었던 낡은 띠)는 燃料로 팔아서 契의 收入으로 하고 木工費등을 충당하기도 한다. 그래도 역시 資金이 필요해서 각 계원들에게서 얼마씩 갹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 자세한 狀況

과 經過는 硏子磨契項에서 涯月邑 下加里 〈 안굴몰방에 〉의 大修理狀況을 소개한 대목을 參照해 보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다.

V. 연자매契

연자매의 設立, 修繕, 運用을 위해 주민들은 개개의 연자매集團 중심으로 연자매계를 조직한다. 연자매계는 〈 몰ᄆᆞ렛제 〉·〈 몰방엣제 〉 혹은 〈 몰ᄆᆞ렛접 〉·〈 몰방엣접 〉이라 부른다.

연자매契는 단지 연자매의 設立, 修繕, 運用을 위한 機能만을 지니는 게 아니라 계원들 사이에 부모나 조부모의 三喪이 부딪치거나, 墓所의 築墻 또는 家屋의 新築등 大事를 당했을 때 쌀 등을 모아 賻助하는 등의 協扶組織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涯月邑 下加里의 〈 연화못몰방에 〉의 契座目을 보기로 하자.

戊午 二月日 改座目

立 議

右立議段馬舂家設立之意唯我十餘人同心作契

日後若作弊則爲先永勿投足是於無本錢出送是齊

一. 他人來磨則一臼其穀二升式收醵是齊

一. 賻米五昇輪助是齊

一. 無論舂與家修葺時闕條一日拾錢式徵收是齊

1918年 戊午에 개정된 座目이다. 下加里 蓮花못 주변의 10여가구가 합의하여 硏子磨屋을 설립하면서 契를 조직하였는데 만약 계원 가운데 作弊하는 이가 있으면 영구히 投足하지 못하도록 하고 本錢을 내줌이 없이 쫓아버린다고 했다. 여기 〈無本錢出送〉이란 言表가 재미 있다.

이 연자매 계원이 아닌 분이 이 연자매를 이용할 경우면 그 찧는 곡식을 二升씩 賃貸料로 받아내며 계원중에 父母喪이나 小大祥등 大事를 당했을 때는 賻助米를 1가구당 닷되씩 갹출하여 돌려가며 돕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硏子磨屋을 새로 덮어 일 때는 물론 전 계원이 지붕을 일 새(띠)와 지붕을 잡아묶는 줄을 갖고 나와서 함께 일하는데, 빠진 분은 하루에 10錢씩 징수한다고 정해 놓았다. 賻助米까지 곁들고 있으므로 이 연자매계는 第一義的인 연자매 運用을 비롯, 이웃끼리 相扶相助하는 主要 機能을 겸하는 셈이요, 이웃 상호간에 유대를 더욱 짙게 하는 要因도 된다.

같은 涯月邑 下加里에 〈 안굴물방에 〉가 있다. 이 〈 안굴물방에 〉의 연자매계는 상당한 연륜이 쌓은 두툼한 契座目을 가지고 있다. 1912년 壬子年에 개정된 座目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혀 있다.

壬子 正月日 馬舂契改座目

立 議

右立議段唯我契員同心設力馬舂凡事修治勤勤遂行是矣

若有懈怠之人則無本錢出送是齊

一. 各各下錢文一兩式存本推利是齊

一. 賻米段粟米伍升式限兩喪顧

一. 契員中馬磨時次次輪回毋至違越是齊

연자매 계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연자매를 修治하고 勤勤히 힘쓰기로 하는데 만약 이를 해태하는 자가 있으면 本錢을 내줌이 없이 쫓아버린다고 規制하고 있다. 계원 각자에게서 一兩씩 갹출하여 資本을 만들되 이를 貸與하여 利子를 받고, 계원 가운데서 兩親喪을 당했을 때는 賻助로서 좁쌀 닷되씩을 모아 드리며, 계원들이 이 연자매를 사용할 때는 서로 다투는 일 없이 순서에 따라 써야지 순서를 안지켜서 위반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자세히 規制하고 있다.

계의 자금으로 모여진 금액은 계속 貸與하여 利子를 받아가면 점점 불어난다. 이자를 받아 불어난 금액으로써 연말이 되면 음식을 하면서 즐긴다. 곧 음력 연말이 되면 소 한마리를 잡고 契長·公員·所任을 優待하면서 음식하며 즐기는데 이를 〈 젯본조 〉라 한다.

연자매계의 계문서는 〈 座目 〉이라 한다. 이 座目에는 계원의 명단이 우선 나열되어 있고 위에서 본 〈 立議 〉, 곧 연자매계가 처음 설정될 때의 기본규약이 적혀 있으며 契運用上의 會計記가 수록되어 있다. 앞의 〈 안굴물방에 〉의 會計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辛卯年 二月日 馬春屋修繕時費用金으로 各名下 百圓式 收入하여 二千五百圓也.

木工費千五百圓 支拂하고 餘金이 千圓. 椽木餘分賣上三千圓. 內八百圓은 蓋屋人酒價로 支出하니 餘金二千二百圓也所任下留置. 舊茅〈그신새〉十束代四百圓林性保下未收. 右金 二千二百圓은 癸巳年 二月日 蓋屋時煙草價로 除之.

말하자면, 辛卯年(1951년) 2월에 硏子磨屋이 심히 낡아서 그 지붕을 걷어치우고 새로 덮는 수선작업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會計備忘記인 것이다. 우선 계원 각자에게서 수선비용으로 100원씩 수금한 2,500원으로서 木工費를 지출하고 나니 1,000원이 남겨졌다는 것이다. 지붕 수선에 필요한 서까래 (椽木)를 계원 각자가 갹출했는데, 쓰다가 나머지는 팔아서 3,000원을 契의 수입금으로 했다. 거기서 800원은 지붕을 인 분의 술값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所任에게 유치시켰다는 것이다. 2년에 한번씩 빠짐없이 지붕을 이기 때문에 지붕엔 띠가 덮이고 덮이어서 두툼해진다. 지붕을 수선할 때에는 이 두툼하게 덮인 띠를 온통 걷어치운다. 이 지붕을 덮었던 낡은 띠를 〈 그신새 〉라 한다. 그슬린

새(띠)란 뜻인데 땔감으로 쓰인다. 그 〈그신새〉 열묶음을 林氏에게 400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 代金은 未收. 서까래가 남긴 것을 판 收入金에서의 殘金 2,200원은 그 2년후인 癸巳年(1953年)에 지붕을 일 때 담배값으로 지출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硏子磨屋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일의 하나는 지붕 이기다. 2년에 한번씩 隔年으로 亞박亞박 지붕을 이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지방에서는 해마다 지붕을 이어야 한다. 그 시기는 보통 음력 11월이 된다. 계원 각자의 지붕을 이고 난 다음, 비교적 한가한 날을 택하여 硏子磨屋을 인다. 이 날 계원들은 각자 띠 한뭇, 줄(지붕을 이는 데 쓰이는 줄) 두줄쯤씩을 갖고 나와서 다같이 지붕 이기에 당한다. 만약 이 날 작업에 불참하게 되면 座目에다 不參人名單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에 勞力負擔하도록 조치한다.

賜　記
張　某
高　某
林　某
右立議段後牛馬舂蓋屋時未參之人으로 輪次隨行是齊

이 연자매계는 단지 연자매를 運用할 뿐 아니라 계원중 大事에 부딪쳤을 때 쌀을 모아 賻助하는 등의 協扶組織이기도 하다는 말을 이미 했다. 그 賻助米의 갹출기준은 계조직 당시의 協約에 따른다. 그리고 계원 가운데서 大事에 부딪쳐 賻助米를 모아 주기를 희망할 때, 비로소 所任은 계원 각자에게 알리고 定量의 賻助米를 모은다. 이 協扶機能은 계조직을 한층 鞏固히 하면서 이웃끼리 相扶相助하는 美風을 꾸준히 키워 왔다. 賻助米를 수합하여 요청하는 계원에게 건넸을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座目에 기입하여 備忘하려 한다. 예들어 下加里 〈안굴물방엣제〉

의 경우, 賻助米에 대한 기록을 일부 보면 다음과 같다.

- 乙丑 四月日 高庚龍 母親初喪時 米七斗
- 乙酉 十二月日 金在奎 母親移葬時 米七斗五升
- 庚戌 十二月日 尹永凡 母親初喪時 米七斗五升
- 壬子 十二月日 林士由 曾祖移葬時 米七斗五升
- 癸丑 六月日 高平允 父親初喪時 米六斗五升
  邊用簪未收
- 甲寅 四月日 林斗行 父親墓築墻時 米八斗
- 丁巳 六月日 高碩珍 妻父大祥時 米七斗
- 戊午 七月日 朴仁孝 祖母小祥時 米八斗

이상을 보면, 父親初喪, 母親初喪, 父親小祥, 祖母小祥, 妻父大祥, 父親墓築墻, 母親移葬, 曾祖移葬時等에 賻助米를 수합했다. 이 座目에서 賻助米에 대한 收合記를 다시 살펴 보면 妻母初喪, 成造, 子小祥, 妻母大祥, 父親移墓, 祖父墓築墻, 新建築時等으로 賻助米 收合 경우가 확대된 셈이다.

요약하면 賻助米의 收合은 兩親의 初喪과 大小祥, 祖父母의 初喪과 大小祥 및 親子의 初喪, 大小祥 等 直系尊卑의 三年喪을 맞을 때가 위주가 된다. 다음 妻父母의 三年喪에도 賻助米를 가끔 모았었다. 또한 兩親이나 祖父母等의 墳墓를 移葬할 경우, 혹은 墓所에 네모난 〈 산담 〉을 築墻할 경우 賻助米를 모으는 수가 가끔 있었으며, 새로이 집을 건축하거나 집을 지어 成造할 때 수합하기도 했다.

Ⅳ. 연자매의 機能

연자매는 이삭채의 곡식을 장만하는 일, 곡식을 찧는 일, 곡식을 빻

는 일 따위에 쓰인다.

곡식의 이삭을 연자매에 올려 얹히고 알갱이를 떨어내어 장만하는 일을 〈 둥그린다 〉고 한다. 혹은 〈 둥으리다 〉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곧 '굴리다' 의 방언이다.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게 조 둥그리는 일이요, 밭벼와 보리 따위를 둥그려서 이삭의 알갱이를 떨어낸다. 다음엔 곡식을 찧는 일이다. 제주도의 主穀이 보리와 조이므로, 보리와 조를 찧는 일이 주요 작업이다. 아울러 메밀 따위를 찧기도 한다.

빻는 작업은 둥그리거나 찧는 작업에 비해서 이용빈도가 얕다. 大事가 있거나 해서 떡가루를 빻을 때쯤 이용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분량이 작은 것은 제주도 특유의 木製 절구인 〈 남방에 〉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통나무로 만들어진 이 〈 남방에 〉는 그 직경이 1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대체로 그 재료는 느티나무인데 집집마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大門間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퍽 편리하다. 따라서 엔간하면 〈남방에 〉에서 빻으며 분량이 많았어야만 연자매를 쓴다. 연자매에서 빻는 것은 좁쌀·쌀·메밀쌀·切干 따위다. 간장을 담글 메주를 빻기도 한다. 이처럼 연자매는 곡식의 이삭에서 알갱이를 떨어뜨려 장만할 때 곡식을 찧어 쓿을 때 그리고 곡식따위를 빻을 때 주로 쓰인다.

연자매는 이 3大機能外로 멱서리, 멍석 따위를 결을 짚을 두드리기 앞서 두드리기 편리하도록 우선 짚을 풀죽이는 데 가끔 쓰인다.

작업시간은 그 작업의 종류와 대상의 분량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조를 둥그려 장만할 때면 한번에 평균조 小斗 10斗쯤의 알갱이 분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30분쯤 소요된다. 한번 착수하면 10섬(小斗 150斗)을 연거푸 장만하는 수도 있다. 보리 찧기는 그 소요시간이 보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쌀보리(裸麥)의 경우는 쉽고 겉보리의 경우는 오래다. 대체로 보리 小斗 5斗~10斗쯤 넣고 찧는데, 쌀보리가 1시간쯤 걸리는데 비해 겉보리는 그 갑절인 2시간쯤 찧어야 된다. 小斗 3斗 내지 5斗의 좁쌀을 빻는 데는 보통 2시간이 所要되

며 절간(切干,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 2 斗쯤을 빻는데는 1 시간쯤이 걸린다.

계절에 따른 주요 작업을 보면 겨울과 봄철엔 조 찧기, 여름엔 보리 찧기, 가을엔 조 둥그리기 등이다. 연자매의 이용은 각 연자매계의 계원들이다. 농번기에는 각 농가마다 연자매를 이용해야 하겠기 때문에 그 이용 순서가 문제된다. 그 순서는 다음에 쓰겠다는 표시로 빗자루·키(푸는 채) ·멍에·〈 좀팍 〉(〈솔박〉이라고도 하는데 길둥글게 나무를 파서 만들어진 그릇으로 곡식을 푸거나 담는 데 쓰는 그릇)따위를 연자맷간 〈 팡 〉 위에 갖다 두거나 장만하거나 찧을 穀物을 날라다 두는 순서에 따른다. 보리를 찧을 경우엔 보리 축일 물을 〈 허벅 〉(濟州特有의 吸水用甕器)에 길어다 얹혀 두기도 한다.

연자매를 쓰지 않을 때는 연자매의 〈 채경 〉을 所任이 보관한다. 따라서 쉬는 연자매를 계원이 쓰고자 할 때는 所任宅에 가서 〈 채경 〉을 가져다가 메워서 쓴다. 〈 채경 〉을 所任이 보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채경 〉은 연자매를 運用할 때에만 〈 채경구녁 〉에 끼워 쓰이는 것이므로 안 쓰일 때엔 자칫 잃어버릴 우려가 짙다는 점과, 연자매를 어느 집에서 쓰는지 언제나 所任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연자매를 쓰기 시작해서 잇따라 몇몇분이 연거푸 쓸 경우엔 맨 마지막에 쓴 분이 그 〈 채경 〉을 所任에게 돌려 보관케 하는 게 常例다.

作業樣式은 마소의 힘을 이용하거나 人力에 의하는 두가지 形態가 있다. 연자매를 역시 〈 물ᄆᆞ레 〉·〈 물방에 〉라 했듯이 마소를 이용하는 게 常規的인 것. 마소 가운데도 말을 이용하는 율이 옛날엔 많았었다. 소에 비하여 말은 동작이 빠를 뿐더러, 소는 밭갈이할 때 쓰이는 게 主役이므로 소를 연자매 찧기에 오래 쓰이게 하면 정해진 곳을 뱅뱅 도는 데 習慣이 돼서 자칫 밭갈이할 때 흐트러지기 쉬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말을 쓰는 게 원칙이요 말이 없을 때 부득이 소를 부린

다지만, 마을에 따라 말을 별로 안 기르는 곳에서는 오히려 대부분 연자매를 찧을 때 소를 부리는 곳이 많다. 마소를 이용할 때면 소나 말, 그 어느 쪽을 부리든, 두 사람이 함께 따라 일하면 된다.

곧 한사람은 장만하거나 찧는 穀物을 쓸어 올리며 뒤엎어 놓으면서 골고루 장만되고 찧어지게 하면서 작업의 始終을 主導한다. 이 일은 대체로 主婦가 맡는다. 또 한사람은 마소의 뒤를 따르면서 막대기를 들고 마소를 몬다. 마소를 모는 일은 대체로 어린이가 맡는다. 어린이가 아니면 남자가 맡는 게 常例이지만 여인이 소를 몰기도 한다. 마소를 몰 인력이 없으면 여인 혼자 穀物을 쓸어 올리고 뒤엎으면서 아울러 마소 모는 일을 겸해 하기도 한다.

연자매 찧을 마소가 집집마다 갖추어 있지도 않다. 이따금 남의 마소를 빌려서 부리기도 한다. 남의 마소를 빌려 연자매를 찧었을 때는 그 代價로 그 마소 주인댁 밭에 가서 김을 하루 매어주는 게 常例였다.

마소없이 人力을 이용할 때는 5～6인이 동원된다. 〈 채경 〉 둘을 메워 각각 한분이 질빵을 걸어 어깨에 메고 끌며, 〈 채경 〉 뒤로는 한두분씩 〈 채경 〉을 윗배에 대어 민다. 이밖에 작업을 主導하여 비질하는 분이 따라야 하므로 도합 5～6인으로써 연자매를 찧는 것이다. 大事가 있거나 할 경우엔 간단 간단히 빻을 거리가 자주 생긴다. 이럴 땐 마소가 있으면서도 마소를 끌어내어 메우고 찧기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친족들이 서둘러 人力으로써 처리한다. 人力으로써 오랜 시간 연자매를 찧을 경우엔 〈 채경 〉 넷을 끼워 5～7인이 동원, 작업을 할 때도 있다. 연자매가 당초부터 〈 채경 〉 넷을 메울 수 있게 만들어졌어야 이런 작업은 가능한 것이다. 〈 채경 〉 둘을 메울 수 있게 마련되는 것은 最低의 基本形態요 〈 앞틀목 〉·〈 뒤틀목 〉 중간쯤에 다시 각각 〈 채경구녁 〉을 마련, 〈 채경 〉 넷을 메울 수 있게 된 연자매는 그리 흔하지 않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밤낮 없이 연자매를 찧었었다. 精米所가 생기기

전에는 곡식을 장만하고 찧는 방법은 다만 연자매에 依存되었었기 때문이다. 정미소가 생긴 다음에도 零細農家로서는 엔간하면 연자매를 이용했지 함부로 정미소를 찾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미소 수효가 부쩍 불어나고 그 利用度가 점차 짙어가는가 하면 곡식 이삭에서 알갱이를 떨어내는 脫穀機도 패 생겨나는 사이, 연자매는 거의 無用之物이 돼 버렸다. 이리하여 도내 각 촌락에서 연자매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30년 전에서 10년전 사이다. 예전에 연자매 작업을 얼마나 심히 했었었는가는 壯年 이상의 주민들 누구나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남겨진 연자맷간을 자세히 살펴 보면, 대들보에는 대체로 등피를 달아맸던 못이 박혀 있으며 磨屋의 돌담벽에는 반드시 〈 각짓불 〉·〈 燈불 〉을 얹었던 燈檠用으로 쓰였던 자리가 남겨져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자매를 이용하여 찧고, 빻고, 장만했었다는 구체적 증거다.

말할 것도 없이 연자매는 이상 말해 온 것처럼 찧고, 빻고, 장만하기 위하여 꾸며진 것이다. 연자매의 機能은 바로 이를 위해 있다. 그런데 穀物을 장만하고, 찧고, 빻기 위하여 硏子磨屋이 마련된 건 사실이지만 이런 機能을 다하는 한편으로는 자그만 副次的 機能이 있다. 그것은 喪輿用具中 長杠木을 磨屋천정에 보관해 두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喪具를 간수해 둘 喪輿집을 동네마다 갖추어 있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도민과 연자매와는 살아 있을 때는 말할 것 없고 幽明을 달리한 다음에도 지극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연자맷간은 또한 마을 사람들의 情報交換處로도 이용된다. 長長晝日이면 벽돌담을 헐어 놓고 모여 앉아서 논다. 어른들은 雜談·바둑·장기로써 消日하고 어린이들은 고누따위를 둔다. 말하자면 亭子代用인데, 이곳에서 마을의 정보를 교환하고 세상 사는 지혜를 기른다. 동네에 부딪친 公共事를 非公式的으로 협의하고 신문, 방송기사적 생활정보를 교환한다. 이 자리는 質朴한 農漁村 주민들의 소중한 窓口이면서 良識을 공급받는 샘터다. 日常 市井事가 說話되는가 하면 옛말이 이야기된다. 물론

모인분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지마는, 가끔 여인들도 한몫 끼어 어색지 않게 설화에 참여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話題를 수동적으로 엿들으며 세상사는 슬기와 꿈을 키운다. 보리를 찧을 때 보리를 축여 줄물을 얹혀 두는 屋內 주변의 〈 팡 〉은 사람들이 모여 앉을 의자 구실을 한다.

〈 앞돌 〉이나 〈 천 〉에는 고누를 그리고 고누 두는 곳으로 이용된다. 어차피 연자매는 제주도민과 오랜 옛부터 생활을 함께 해 왔으며, 갖갖 哀歡이 깃들여 있다. 제주도 특유의 草家지붕처럼 소박하나마 단정하게 磨屋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外來人들에게는 짙은 印象을 심겨준다. 우리는 〈 三多島라 濟州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로 시작되는 〈三多島 소식 〉이란 流行歌를 대체로 기억하고들 있다. 이 흘러간 옛노래 제2절에 보면 〈 달빛에 젖어드는 연자방앗간…… 〉운운의 가사가 끼어든 대목이 있다. 돌, 바람, 여인과 함께 제주의 한갖 상징으로 연자매가 등장하는 걸 보더라도 濟州民과 연자매와는 不可分離의 관계에 놓였음을 傍證해 준다 할 것이다.

제주에서 9년간 謫居生活했던 秋史 金正喜는 다음과 같이 연자매를 노래했다.

人十能之馬一之 (사람은 열이 들어야 하는 일을 말 한 필이 하는구나)
三家村裸託神奇 (세 집만 있는 마을에도 마련하였으니 신기하기 그지 없네)
大機大用元如此 (큰 기구 크게 씀이 본디부터 이렇거늘)
還笑宗風老古碓 (도리어 宗風의 노고 방아를 비웃노라)
引泉爲碓亦塵 (샘물을 끌어다가 방아를 만드는 것 역시 작은 것이니)
嘶嘽舂歌莫見猜 (흥얼거리는 방아노래여, 이를 보고 시기하지 마오)
似向先天採至像 (사람 있기 전에 썩 뛰어난 모습 찾은 것 같고)

恍疑龍馬負圖來 (황홀함이 龍馬가 卦圖를 지고 오는 듯하네)

寫實的인 이 詩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 몇가지를 알 수 있다. 연자매 찧는 데는 마소 가운데 말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었다는 점, 아주 자그만 마을에도 연자매가 있었다는 確證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연자매의 규모는 韓本土의 절구쯤이 대거리될 수 없다는 점, 연자매 찧는 情趣가 한결 신비롭고 優雅하기 비할 데 없다는 점, 연자매 찧으면서 연자매노래를 불렀었다는 점 등이다.

숱한 일거리와 더불어 살아 오는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으로선 그 유례를 쉬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수준 높고 풍부한 勞動謠를 지녀 왔다. 물론 연자매작업에도 민요가 따랐었다. 그러나 그 뛰어난 ' 맷돌—방아노래' 나 '해녀노래' 처럼 흔히 불리어졌던 게 아니라, 띄엄띄엄 불렀었고 그 사설도 산만하다. 이제는 그 전승자도 만나기 힘든가 하면, 固定的 辭說은 드물어서 대체로 '발밟는 노래' · '해녀노래' · ' 맷돌—방아노래' 의 사설과 交流된다. ((그 사설과 歌唱實態에 대해서는 金承奉의 「濟州島의 연자매와 그 民謠硏究」(濟州大敎育大學院 學位論文, 1982) 를 참고하기 바란다.))

Ⅶ. 〈 잣동네물방에 〉 및 〈 당동네물방에 〉

이상 연자매 일반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본항에서는 이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涯月邑 下加里 〈 잣동네물방에 〉와 新嶺里 〈 당동네물방에 〉에 대하여 살펴볼까 한다.

① 〈 잣동네물방에 〉

〈 잣동네물방에 〉는 약 200 가구의 典型的인 農村이면서 班村인 涯月

邑 下加里에 있는 연자매의 하나다. 원래, 이 마을에는 9개소에 연자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5개소는 고스란히 現傳한다. 그 보존된 연자매 다섯 가운데 材料·規模·保存狀態 및 位置로 보아 가장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연자매를 重要民俗資料로 지정하기를 제청했고 1975년 10월 13일, 중요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되었다.

도일주를 여러 차례 하면서 거듭거듭 조사해 보았었지마는 한마을 안에 5개의 연자매가 고스란히 남겨진 마을도 이 下加里 말고 찾을길이 없었다.

우선, 이 마을의 概要부터 살펴 보자. 濟州市에서 西廻로 涯月—翰林—蓁瑟浦를 거쳐 西歸浦에 이르는 일주도로를 달리다 보면, 外都—下貴—涯月을 거치고 新嚴을 지나 高內에 이르기 앞서 〈 자운당 〉이라 불리우는 세갈림길에 당도한다. 濟州市에서 이 〈 자운당 〉까지가 市外버스로 30여분쯤의 거리, 〈 자운당 〉에서 南으로 훤히 트인 길을 20분쯤 걸어 올라가면 下加가 나타난다. 下加里는 西南에 위치한 上加里와 더불어 〈 더럭 〉이라 일컬어지는데 西에 高內峰이 우뚝 솟았고, 마을 남쪽에 〈 연화못 〉(蓮花池)이 있어 유명하다.

이 〈 연화못 〉은 그 면적이 3,780여평에 이르며 水深이 7척에 달하는데 제주에서 가장 큰 奉天水池인 것이다. 이 못은 못안에 자라나는 유명한 연꽃도 꽤 알려졌거니와, 잉어가 꽤 번식하며 도지정 낚시터로 낚싯군들의 湖畔낚싯터로써 이용되기도 한다. 이 〈 연화못 〉의 生成傳說로 興趣있게 전승되며 당국에서는 이웃마을 納邑의 錦山公園과 연결되는 觀光圈을 구상하고 있다. 〈 쉐죽이물 〉·〈 궤물 〉·〈 군산이물 〉·〈 東之泉 〉 등 지난날의 飮料水用 奉天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가 하면 여남은 동네들이 오붓이 늘어선 班村이다. 500여년전 設村되었으리라는 이 마을에는 白氏·羅州金氏·順興安氏·南平文氏·晋州姜氏·平澤林氏· 坡州尹氏·耽羅高氏·仁同張氏 등의 順으로 入住했다 한다.

이 마을의 特異性은 그 景勝에도 있겠지마는 딴 마을에 비해 崇儒的

분위기가 짙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가끔 漢籍을 소장한 분들이 많으며, 漢字에 조예 깊은 분들이 더러 있다. 그 이유의 첫째는 도내에 도합해야 여남은밖에 안되는 書院 곧 學堂의 하나가 19세기 전반기에 바로 이 〈 더럭 〉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1883년 (純祖 33년) 에서 1846년 (憲宗 12년) 사이에 이 마을에 西學堂이 있었으니, 이는 韓應浩牧師가 직접 세웠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더럭국민학교 서쪽 밭 안에 韓應浩牧師 紀念碑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 해방직후 1946년 해산된 明倫會라는 自治的 機構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청장년들로써 20년간이나 이어져 오면서 造林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明倫意識을 고조해 온 사실만 하더라도 지난 날의 崇儒觀念의 작용이었다 할 것이다.

〈 잣동네 물방에 〉는 일주도로에서 下加에 들어서 아직 〈 연화못 〉에 이르기 전에 위치해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른 연자매에 비하여 그 規模·材料·保存狀態가 좋을 뿐더러, 硏子磨屋도 비교적 딴딴히 지어졌으며 위치도 세갈랫길에 번듯이 앉아 있다. 〈 잣동네 물방에 〉의 〈 웃돌 〉은 이웃마을 속칭 〈 신구 〉에서 마련한 돌이라 하며, 〈 앞돌 〉은 이 마을 입구 〈 자운당 〉옆 〈 도채비수덕 〉에서 마련했다 한다 〈 틀목 〉은 소나무인데 50년~60년마다 교체했다 하며, 〈 중수리 〉는 솔피나무인데 30년 ~ 40년마다 갈아야 했었다는 것이다.

〈 팡 〉은 세군데 있으며 대들보에는 못이 박혀 있어 밤일할 때 등피 거는 裝置를 해 놓았다. 磨屋 출입구 동쪽 벽에는 〈 각지불 〉이라는 石油燈盞 얹는 燈檠用 石台가 자연스럽고도 소탈하게 마련되어 있다. 연자매의 계원들이 농번기에 이를 이용하는 순서는 멍에·빗자루·〈 좀팍〉 따위를 갖다 두는 차례에 따랐다는 것이며, 〈 중수리 〉 교체는 契員輪番制라기보다 계원전원이 그때 그때 총동원하여 합력하여 서둔다는 것이다.

硏子磨屋의 지붕 이기는 음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행해지는데

계원전원들이 떠 한뭇과 〈 줄 〉 두줄씩을 갖고 나와 勞力提供에 따른다는 것이다. 연자매 전반에 걸쳐 위 각항에서 보고했던 바와 別差없는 대로 어차피 제주도내의 現存 연자매들을 대표하는 연자매임은 분명할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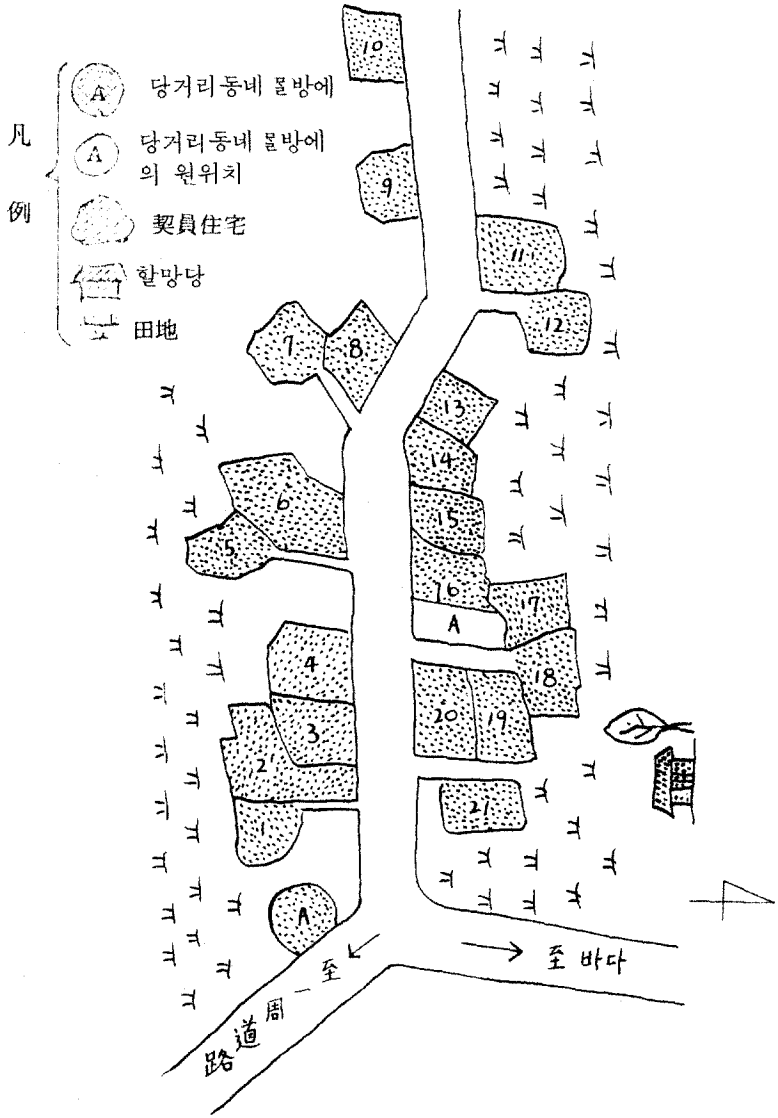
② 〈 당거리동네 물방에 〉

〈 잣동네 물방에 〉가 있는 下加에서 일주도로로 나와 濟州市쪽으로 불과 5분쯤 차를 타면 新嚴里에 이른다. 新嚴은 舊嚴·重嚴등 이웃해 있는 마을들과 더불어 〈 엄쟁이 〉라 하는데 200여년전 설촌되었으리라 추측들 한다. 新嚴은 그 地名에서 보듯, 舊嚴·重嚴 다음에 설촌된 마을인데 해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漁業이 별로 성하지 않은 평범한 농촌이다. 약 250가구에 인구 천명쯤을 포용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원래 14개의 연자매가 있었는데 殘痕이나마 現傳되는 것들을 합치면 셋이 남겨졌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은 이 〈 당거리동네 물방에 〉하나뿐이다.

이 연자매는 그 磨屋이 깔끔하게 이어졌고 조 둥그릴 때 (곧, 조이삭을 연자매에 부어넣고 방앗돌을 굴림으로써 알갱이를 떨어내는 일), 혹은 麥嶺時 임시 먹을 식량을 마련할 때쯤해서 현재도 이용하고 있다. 이 연자매의 現所任인 鄭時好氏(男·71세)는 이런 이유외로도 연자매의 存置 理由를 연자매를 이용할 경우엔 〈 조체 〉 (조에서 벗기어낸 겉껍질)를 고스란히 돼지 飼料로 有效하게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油類波動 이후 精米所의 手數料가 비싸졌으므로 零細農家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마을의 性格的 特異性은 별로 찾을 길이 없으나 연자매가 現傳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이 마을 주민들이 비교적 保守性을 띤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所得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이한 作物이나 企業이 없는데다 裸潛漁業까지 포함한 水產業마저 不振한 마을이면서 주

新嚴里 〈당거리동네 물방에〉 契員家口分布圖



민들의 品性이 溫古的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을 입구 일주도로변에는 新嚴中學校가 서 있다. 이 마을 출신 在日僑胞가 자금을 모아 중학교를 세우고 국가에 희사한 도내 唯一의 私設 公立校다. 敎育을 참으로 중시하는 住民意識을 이내 살필 수 있다.

일주도로에서 중학교를 옆에 끼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서 약 7분쯤 걸으면 〈 당거리동네 물방에 〉에 이른다. 〈 당거리동네 물방에 〉는 〈 할망당 〉이 있는 〈 당거리동네 〉 21가구, 말하자면 新嚴里 8반 반원 全家口가 공동으로 設立·運用하는 연자매다. 이 〈 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위치와 이 硏子磨契員들의 家屋 分布를 다음 그림으로 제시해 본다. 그림으로 보듯, 연자매는 이 동네의 입구 세갈림길 길가에 위치해 있고, 길가에 길쭉이 옹기종기 앉은 이 동네의 契員들은 이 연자매를 頂點으로 群集되어 있다.

연자매의 원위치는 Ⓐ표시의 地點이었다. 이 연자매는 100여년전 Ⓐ지점에 세웠졌었다는데 午方에 연자매가 있으면 午馬繁殖에 해로움이 있다는 俗信에 따라 1903년쯤 현위치로 옮겼다는 것이다. 現所任 鄭時好(당71세)의 말에 따르면 前位置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했었다는 데도 한갖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인다.

1928년 매조이를 했었고, 1967년에 시멘트 등으로 수리를 했다 한다.

分布圖에 따라 계원 家口主를 다음에 제시하고 계원 상호간의 姻戚關係를 살펴보는 것도 硏子磨集團을 理解하는 데 참고가 될 듯하다.

1. 金昌甲
2. 金麗洪
3. 鄭時奉
4. 鄭時好
5. 鄭時龍
6. 金奉三
7. 鄭己出
8. 鄭時鳳
9. 鄭圖一
10. 宋太玉

11. 金文旭　　12. 洪錫行
13. 宋永壽　　14. 姜乙鳳
15. 金昌玉　　16. 金順兒
17. 高昌龍　　18. 梁成澤
19. 河永善　　20. 金奉珍
21. 李南眞

여기 〈 10. 宋太玉 〉은 原家口主 鄭鳳吉氏가 出他함으로써 대여받아 근래 入住했는 바, 따라서 계원이 아니므로 연자매 運用과는 아무런 權利·義務가 없다. 〈 高昌龍 〉은 서울로 移住하여 지금 居住者가 없다. ③, ④, ⑤는 六寸, 八寸사이의 近親이며 ②, ⑥ ⑪, ⑳은 六寸間이요, ②와 ⑰은 內外從사이다.

이 연자매의 〈 윗돌 〉은 'Ⅲ. 연자매의 製作'에서 말했지만 이 연자매가 있는 현위치에서 30 *m* 거리에 있는 〈 도들왓 〉이라는 곳에서 마련했었다는데 하기윤, 김성길, 정규원, 김사길, 정상권, 김성현, 고영송 등 현지주민들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한다. 〈 중수리 〉는 2～3년에 한번씩 계원들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갈아메우는데 원래는 솔피나무로 하면 게 소나무로 바뀌었다. 〈 틀목 〉은 10년쯤해서 한번씩 전계원을 총동원해서 갈아메우는데 역시 솔피나무나 소나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연자매의 維持와 修理' 項에서 이 〈 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契座目中 '堂巷磨石中柱出資名簿'를 제시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1948년(戊子)에 改正한 바 있는 契座目中 '中柱(중수리)出資名簿'를 빼고난 그 前半部分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1: 戊子八月三日
　　堂巷磨石契座目名簿
p.2: 契中附屬物品目錄

o 石斧貳個

o 石끌壹個

o 물가래壹個

丁酉 十一月二十一日 所任 金宗範에게 石機具를 留置함.

西紀 一九六五年 十二月 日

所任 高熙柱 ㊞

西紀 一九七〇年 正月日

所任 鄭時好 ㊞

p.3 : 仙 高永松　　金成吉

仙 金平洪　　仙 文 鳳

仙 金常敦　　仙 高千松

鄭時奉　　宋永壽

仙 金宗凡　　仙 金學潤

高熙柱

p.4 : 高永祚　　鄭時好

仙 鄭時龍　　李芳賢

仙 高昌龍　　鄭庚生

金昌權　　鄭時鳳

金奉旭　　鄭時興

P 5. 鄭奉吉　　河永善

金奉順　　洪錫行

以上

乙亥(一九五九) 十一月 二十九日 新加入名簿

李南眞　　高元吉

이 연자매계의 비품은 石手用 도끼 2개와 石手用 끌 1개, 물매 1개임을 알 수 있는데, 石手用 도끼나 끌은 연자매의 〈 웃돌 〉·〈앞돌〉

을 新造하거나 매조일 때 필요한 기구로 常備하는 것이며, 풀매는 계원들 가운데 필요할 때 돌려가며 쓰기 위해 비치하는 것이다. 맷돌이나 통나무로 된 나무절구, 곧〈 남방에 〉는 제주도 농가로서는 家家戶戶 마다 갖추어야 할 만큼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지마는, 풀매는 年中에도 두세번 쓰면 족한 것이기 공동으로 비치해 둘 따름이다.

1935년쯤까지는 契長制가 있었다. 이제는 契長職이 없어지고 所任 두 분을 둔다. 上所任은 鄭時好氏이며, 下所任은 현재 반장직을 맡고 있는 金龍洪氏다. 所任 選出은 3년에 한번씩 치러지는데, 겨울철 음 11월 말쯤이 硏子磨屋을 일 때 決算報告와 더불어 행해진다.

石油燈盞을 받치는 燈檠用石台가 자연스럽게 石壁內部에 장치되었으며 보리를 찧을 때, 이를 축이기 위하여 물을 담아 두는〈 돌혹 〉은 물이 가깝기 때문에 당초부터 마련하지 않았다. 〈 천 〉은 대체로〈 앞돌 〉과는 별도로 20개내외의 石片을〈 앞돌 〉바깥으로 이어붙이어 만든다. 이 각각의 石片을〈 천돌 〉이라 하는데, 이〈 천돌 〉들은 그 밑에〈 첫돌 〉이라는 石片들로 받쳐져 있다.〈 천돌 〉과〈 천돌 〉사이는 원래 찰흙에 솜을 섞어 찌어 철함으로써 고정시켰던 것이었는데 떨어지면 열흘에 한번씩은 다시 철하곤 했었다 한다. 찰흙 대신 石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약 50여년전부터라 한다.

〈 앞돌 〉과〈 천 〉이 가끔 돌 하나로써 이루어진 경우도 참 드물게 볼 수 있다 (예들면 大靜邑 安城里 駐車場 南쪽에 있는 연자매). 40여년쯤까지만 해도 이〈 천돌 〉대신 느티나무·벚나무 등으로〈 천 〉을 둘렀었던 바도 있었었는데 倭政時 伐木을 엄금했으므로 石材로 代替되었다 한다.

이 연자매의〈 웃돌 〉은 현위치에서 약 500m 거리의〈 도들왓 〉에서 여섯분이 운반해 왔었다는데, 그 役事가 얼마나 힘겨웠던 일이었던가를 현주민들은 어련히 懷古들 하고 있다. 이 연자매는 牛馬力 利用時주로 말을 썼었다 한다. 예전에 말을 꽤 쳤었던 까닭이다. 他里에서 이

동네로 移住해 와서, 이 연자매를 이용하려 할 때면, 지붕을 한번 이거나 契資金條로 얼마를 갹출하거나 하는 게 慣例요, 한갖 新入禮였다 한다. 이 新入禮條로 갹출된 資金 및 磨屋 지붕일 때 契員 各家戶에서 지참하고 나온 떠나 지붕을 얽을 〈 줄 〉의 殘餘分을 팔아 모은 돈은 契資金으로 備蓄했다가 修理費로 충당하거나 總會時 간단한 연회비용으로 쓰인다.

〈 당거리동네 물방에 〉의 규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웃돌 直徑 (안쪽) 82 cm
- 웃돌 直徑 (바깥쪽) 95 cm
- 바닥 直徑 235 cm
- 앞돌 直徑 139 cm
- 천돌 길이 47 cm
- 천돌 및 첫돌 높이 59 cm
- 앞틀목 길이 205 cm
- 뒷틀목 길이 225 cm
- 틀목과 틀목 사이 길이 125 cm
- 틀목의 나비 13 cm
- 중수리 높이 132 cm
- 채경 길이 29 cm
- 바닥과 틀목사이 60 cm
- 磨屋 높이 (內部) 195 cm
- 磨屋 가로 길이 607 cm
- 磨屋 세로 길이 409 cm
- 磨屋 入口 넓이 109 cm
- 磨屋 入口 높이 158 cm
- 웃돌의 장통구녁 一邊길이 9 cm
- 앞돌 구녁 一邊길이 11 cm

이 연자매는 지금 專用權을 같은 계원인 李南珍氏에게 讓與하고 있다. 조알갱이를 떨어낸다든가, 보릿고개일 때 급한 食糧을 장만한다든가 하는 한철을 빼고 나면 契員들에게 늘 소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隔年마다 부딪치는 지붕 이기 의무가 번거로울 뿐일 수 있다. 그리하여 1973년 2월 10일 연자매계 회의를 열고 李南珍氏에게 貸與하되 磨屋이기를 책임진다는 조건과 계원들이 사용코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케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李南珍氏는 2년에 한번, 지붕을 이어야 하고 관리를 책임지는 대신, 옥내에 담배를 널어 말린다든가 거추장스런 農具를 보관한다든가 하는 몇몇 利權을 얻고 있다. 어차피 이 연자매는 당분간 原形이 유지되어 갈 것이다.

참고로 이 연자매의 貸與契約書를 보기로 하겠다.

研子磨甲乙雙方貸與契約書

○ 所在地 당거리研子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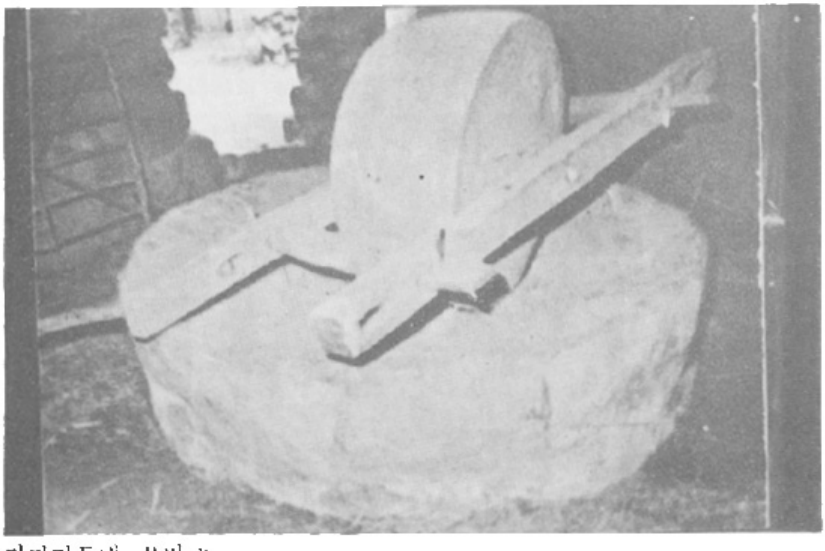
貸與者는 甲으로 定하고 借用者는 乙로 定한다.

上記 研子磨는 甲이 乙에게 貸與하되 西記 一九七三年 二月 十日부터 一九七八年 二月 十日까지 期限을 定하고, 但, 一九七三年度, 一九七五年度와 一九七七年度에는 磨屋 지붕을 일 것을 全的 責任하기로 하며, 本研子磨契員은 우선적으로 使用할 것을 前提로 하여 이에 成證함.

西記 一九七三年 二月 十日

貸與者	甲	당거리研子磨 所在	鄭時好	㊞
借用者	乙	新嚴里	李南珍	㊞
立會人		新嚴里	鄭○○	㊞
立會人		新嚴里	金○○	㊞
立會人		新嚴里	金○○	㊞
立會人		新嚴里	金○○	㊞
立會人		新嚴里	金○○	㊞

당거리동네 물방에집 (碾子磨屋)



당거리동네 물방에

(上) (下)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德修里팀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출연모습